



2020년 7월 26일(제992호) 연중 제17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하늘 나라를 사지? 하늘 나라를 살지!”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사실 자신들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 없이 그물 속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하나의 은총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의 그물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그득해지면 주인은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밖으로 던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세워진 하느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신앙심이 가득한 의인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선한 사람들이요, 당연히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물고기란 어떤 물고기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물고기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나쁜 고기는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발견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 아니 아예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것을 발견하고도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게 아까워 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늘 나라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가치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사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 나라는 발견한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만,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이 요구됩니다. 이는 오직 내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으로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값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 나라는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것을 사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억박질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낼 때야 비로소 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찾고 두드리고 얻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김인식(새레지요한) 신부  
해군교육사(교육사) 생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판호송**

1열왕 3,5-6 7.7-12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로마 8,28-30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마태 13,44-5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복 음**  
**영 성 제 송**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최창주 마르첼리노



성인명: 최창주 마르첼리노 (崔昌周 Marcellinus)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49-1801년

‘여중’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던 최창주(崔昌周) 마르첼리노는 경기도 여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40대 초반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후 그는 온 가족을 입교시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1791년의 신해박해 때 체포되어 광주로 압송되었다가 배교하고 석방되었다. 1840년 전주에서 순교한 최조이 바르바라는 그의 딸이다.

이후 최 마르첼리노는 자신이 지은 죄를 깊게 뉘우쳤고, 순교의 은총을 입어 죄를 씻어 낼 방도를 구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는 가족과 이웃 교우들을 힘써 권면하였으며, 두 딸을 모두 교우에게 출가시켰다. 그 가운데 하나는 1801년 여주에서 순교한 원경도 요한의 아내이고, 다른 하나는 1839년 전주에서 순교한 신태보 베드로의 며느리 최 바르바라이다.

여주 지방에서는 1800년 예수 부활 대축일에 다시 박해가 일어났다. 이때 사위인 원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최 마르첼리노의 아내는 그에게 피신할 것을 간청하였고, 그의 어머니 또한 피신을 종용하였다. 이에 그는 한양으로 피신하기로 작정하고 길을 나섰다. 그러나 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순교를 다짐했던 이전의 마음을 되찾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날 밤에 체포되어 여주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관장은 곧바로 최 마르첼리노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알고 있는 천주교 신자를 밀고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는 “천주교에서는 누구에게라도 해를 끼치는 것을 금하고 있으니, 한 사람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밀고하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그는 다시 옥으로 끌려가 원 요한과 이 마르티노 등과 함께 갇히게 되었다. 이후 최 마르첼리노의 옥중 생활은 6개월이나 계속되었다. 또 10월에는 경기 감영으로 끌려가 다시 형벌을 받았지만, 그의 신앙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1801년에 들어 신유박해가 시작되자, 감사는 옥에 갇혀 있는 신자들을 다시 끌어내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하였다. 이때 최 마르첼리노는 신자들을 대표하여 “모든 사람들의 임금이시며 아버지이신 참 천주를 알고, 그분을 섬기는 행복을 받았으니, 저희는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제 형벌은 점점 더 가혹해져 갔다. 그럼에도 최 마르첼리노는 동료들과 함께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서로를 권면하였다. 그러자 감사는 그들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는 최후 진술을 받아서 조정에 보고하였고, 조정에서는 ‘고향으로 돌려보내 처형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 마르첼리노는 동료들과 함께 여주로 압송되어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4월 25일(음력 3월 13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2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내가 행운을 잡았다



내가 행운을 잡았다.

내가 행운을 잡았다.

힘겹게 풍선을 불다  
짜증도 냈지만,

이제 하나씩  
나뉘야 할  
때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행운이었다.

# 상화이야기

## 신 비탈레 비실리카 성당



그렇다면 이 모든 황제, 그리고 황녀의 화려한 행렬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이 집행될 제단이며, 그 제단의 바로 위 돔의 중앙에는 예수님의 수난과 성체성사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그려져 있다.

이탈리아 리벤나  
6세기경 건축됨



성당의 기둥들에도 어린 양들이 조각되어 미사와 성체성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준다.

김은혜(엘리사벳)

###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17주일: 오뚜기 김어명 신부

####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7월 28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추를 따르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